
뱀과 인간

심재한(한국 양서·파충류 생태·복원 연구소 소장(이학박사))

∴ 뱀 과연 우리의 적일 수밖에 없는가 ?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무수히 많은 동물 중에서 왜 하필 뱀을 선택했을까? 나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뱀으로부터 선택 당했다고 하는 것이 현명한 답일 것이다. 뱀이 뒤집어 써야 하는 온갖 오해와 원망 그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몸부림의 질규를 나를 통하여 대변하고자 나를 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매우 슬픈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뱀에 대한 생물학적인 정보와 뱀들에 대한 통념적인 속성을 20%밖에 모르는 뱀 박사다. 뱀이란 대체 어떤 동물이길래 사람들은 그렇게 징그럽다고 하면서도 박물관이나 동물원에 가면 유리벽 속에 갇힌 뱀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다른 동물보다 많을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버림 받게 한 장본인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복수의 화신이 작용하여 쾌감을 느끼기 때문일까?, 하지만 돌연 불상사가 발생하여 우리 밖으로 기어 나오면 魂飛魄散 놀라 도망가는 이중적인 행태에 인간의 나약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머릿속에 쉽게 뱀의 형태를 그릴 수는 있겠지만, 막상 뱀의 정의를 내리려 하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저 앞, 뒤 네 다리가 없으며, 건조한 비



《에덴동산(아담과 이브와 함께하는 뱀)》

늘로 덮혀 있고, 땅을 기어 다니기에 편리하게 변형된 몸통이 긴 동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

에서 쫓겨나게 한 장본인으로 권모술수와 교활함의 대명사, 숲속의 복병, “물리면 죽는다” 그리고 뱀의 날름거리는 갈라진 혀의 움직임에서 두려움과 호기심의 동물로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앙숙으로 그리 반가운 동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아스클레피오스(Asclepios)는 의술의 신이 되었으며, 고대인들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하루를 보내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신앙을 가졌다. 그의 상징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로 뱀 한마리가 포아리를 틀면서 지팡이를 기어오르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도 당연히 많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다. 오늘날 가장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



《히포크라테스》



《엠블런스의 상징》



《군의관의 휘장》



《세계보건기구 휘장》

유명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유적은 펠로폰네소스 반도 동쪽의 에피다우로스에 있다. 고대에 실제로 많은 병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휴양을 했었다. 예게해 동쪽 도데카니사 제도의 코스섬에도 아스클레피오스의 유적이 남아있다. 코스 섬은 최초의 의사로 대접받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뱀은 교활하며, 영리한 지혜를 가진 영물로 생각돼 왔다. 지금도 군의관의 휘장에는 십자가 나무에 뱀 두 마리가 감긴 도안으로 되어 있다. 인술을 베풀면서 영원의 재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동물 중에서 사람이 태어난 해의 띠를 결정짓는 열두 가지 동물 중에서도 여섯 번째 동물로 뱀이 선택되는 등 그리 우리 인간과 탄생과도 연관되듯이 그리 멀리 느껴지는 동물은 아니었다.

∴ 12간지의 여섯 번째 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동물 중에서 사람이 태어난 해의 띠를 결정짓는 여섯 번째 동물로 뱀이 선택된 것은 뱀이 인간에게 멀리 느껴지는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뱀을 지혜를



가진 영물로 생각했다.

추운 겨울에는 땅속에 숨어 있다가 봄이 되면 고개를 들고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몸뚱이 전체가 한 번에 허물을 벗는 모습은 마치 생명의 재탄생과 영혼 불멸을 연상시킨다.

《뱀의 몸통 골격구조(다리없는 동물)》

이 놀라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뱀을 신비한 초능력이 있는 생물로 간주했다. 일본에는 뱀을 섬기는 절이 있다. 심지어 뱀 연구소에는 높이 5 m의 뱀 여신상이 세워져 있다. 여신상 앞에는 재단이 있어 관람객들은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던지고 종을 울린다. 모아진 돈은 1년에 한 번씩 은행에서 수거해 그 마을의 축제 예산으로 쓰여진다고 한다. 우리나라 민가에서는 옛날부터 뒤 곁 장독대 앞에 “터주”라는 택지신(宅地神)과 “엍”이라는 재신(財神)을 모셔 놓았다. 흔히 “뒷주대감”이란 장독대의 항아리 속에 곡식을 넣어 보관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엍은 집안에 숨어사는 동물인데, 보통 뱀의 종류인 구렁이를 가리킨다. 우리 선조들은 재신 역할을 하는 구렁이가 집밖으로 나가면



《12간지 동물(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 여섯 번째가 뱀) 그림(이영호, 조선일보 DB)》



《허물 벗는 뱀》
(영원 불멸 재탄생 의미)

집안이 망한다고 걱정했다. 이는 선조들은 구렁이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뱀 흘려 수확해 놓은 양식을 먹어 치우는 쥐를 1년에 1백여 마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숭상했던 것이 아닐까?. 구렁이는 쥐가 지나간 발자국을 추적해 집안에 살고 있는 쥐들을 모조리 잡아먹는다. 그래서 구렁이가 살고 있는 집에는 쥐가 없어 곡식을 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모였다 한다. 결혼한 여자가 뱀 꿈을 꾸면 태몽이라 하고, 뱀이 다리를 감으면 사내 녀석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뱀이 남근(男根)을 상징한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꿈에 뱀을 칼로 난도질하는 장면을 꾸면 나를 해하려는 모든 세력을 제거한다는 사악함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듯 뱀과 인간은 서로 꺼려야 할 적은 결코 아니다.

집안이 망한다고 걱정했다. 이는 선조들은 구렁이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뱀 흘려 수확해 놓은 양식을 먹어 치우는 쥐를 1년에 1백여 마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숭상했던 것이 아닐까?. 구렁이는 쥐가 지나간 발자국을 추적해 집안에 살고 있는 쥐들을 모조리 잡아먹는다. 그래서 구렁이가 살고 있는 집에는 쥐가 없어 곡식을 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모였다 한다. 결혼한 여자가 뱀 꿈을 꾸면 태몽이라 하고, 뱀이 다리를 감으면 사내 녀석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뱀이 남근(男根)을 상징한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꿈에 뱀을 칼로 난도질하는 장면을 꾸면 나를 해하려는 모든 세력을 제거한다는 사악함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듯 뱀과 인간은 서로 꺼려야 할 적은 결코 아니다.



《황구렁이》



《먹구렁이》

∴ 코브라에 대한 그릇된 통념

“살가죽이 미끈한 코브라가 소녀의 머리에서 풍기는 자스민 향기에 이끌려 소녀에게 미끄러지듯이 다가왔다. 코브라는 기다긴 몸을 바다 물결처럼

위아래로 꿈틀거리다. 소녀는 코브라가 최면을 거는 듯한 눈초리로 자신을 노려 볼 때, 코브라의 이마에서 찬란한 보석같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때 갑자기 코브라가 공중으로 몸을 날려 달려들더니 소녀의 팔을 독니로 물었다”.

사실일까? 아니면 그릇된 통념일까? 위에서 생생하게 묘사한 장면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꾸민 내용이다. 그러한 그릇된 통념들 중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자스민과 백단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식물의 향기가 뱀을 끌어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향기가 곤충을 끌어들이고, 곤충이 개구리를 끌어들이자 뱀의 먹이인 개구리가 뱀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2. 뱀은 몸을 위아래로 꿈틀거리면 이동한다.
뱀이 커다란 돌을 넘어가는 것을 보면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 코브라와 그 밖의 육지에 살고 있는 뱀은 보통 좌·우로 꿈틀거리며 똑바로 이동한다. 뱀은 몸의 앞부분을 앞으로 쪽 뺨은 다음 뒷부분을 끌어당기거나 지면에 있는 돌출물을 이용하여 S자 모양으로 옆쪽이나 앞쪽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이다.
3. 어떤 뱀의 머리에는 보석이 박혀 있다. 보석 박힌 뱀이 있을까? 고대 인도의 위대한 사람들이 코브라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는 신앙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전설에 불과하다.
4. 코브라는 먹이에 최면을 건다. 잘못된 사실이다. 뱀은 겁을 먹었을 때 상대를 노려보기 때문에 사람이 뱀과 마주 치면 뱀이 최면을 걸려고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뱀이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5. 코브라는 몸을 날려 먹이에게 달려든다. 코브라는 몸의 앞부분을 뺨어서 먹이를 공격하지만, 몸의 대부분은 몸을 지탱하기 위해 땅에 그대로 있다. 공격할 때에도 기껏해야 몸의 반 정도 곧추세운 다음 뒹친다.

6. 코브라를 비롯하여 뱀들은 살가죽이 미끈미끈하고 항상 차갑다. 뱀의 살가죽 그리고 서로 겹쳐져 있는 비늘은 건조하여 부드러운 가죽 같은 느낌을 준다. 뱀은 변온동물이어서 외부의 온도에 따라 체온도 변한다.
7. 여타의 뱀과 마찬가지로 코브라는 듣지 못한다. 틀리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다. 그들은 뱀이 땅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통해서만 주변을 감지할 수 있다.

∴ 백사와 쌍두사는 어떤 뱀일까 ?

뱀은 팔다리가 없고 가늘고 길어서 다른 동물에 비해 기형이 극히 드물다. 그러나 간혹 기형인 뱀이 있는데, 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몸통에 머리가 둘 달린 쌍두사(雙頭蛇)이다. 쌍두사는 기원전 350년의 문헌에 기록이 있으며, 일본에는 유혈목이, 살모사, 실뱀 등에서 쌍두사 기록이 있다. 본인이 소장하는 표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에 채집됐던 쇠살모사 쌍두사(故 백남극 박사)와 2000년 가을에 채집된 누룩뱀 쌍두사 그리고 2005년 살모사 쌍두사가 유일하다. 쌍두사가 생기는 원인은 일란성 쌍생아가 될 알이 발생 도중 분리돼야 할 과정이 잘못돼 몸통이 하나인 채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태어난 새끼는 몸통은 하나지만 머리가 두개이므로 서로 생각하고 먹이를 먹고자 하는 의지 또는 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이 틀리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쉽게 죽는다. 또 특이한 뱀에는 몸통이 하얀 백사(白蛇:Albino snake)가 있다. 백사는 백화증(Albinism)에 걸린 개체이다. 백화증은 피부의 색소세포 속에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함유되지 않아 전신 또는 신체 일부분이 백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백화증이 나타나도 눈은 붉은색을 띠는데, 이 색은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 들어 있는 적혈구의 색소 때문이다. 뱀에서 생긴 백화증은 병이라기 보다는 1십만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유전적인 돌연변이이다. 뱀 이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백화 현상이 나타난 동물은 흰사슴, 흰송아지, 흰까치 등

이 있으며, 물과 관련되어 서식하는 종류는 노란미꾸라지, 노란자라, 노란 송어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이런 개체의 출현이 빈번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쌍두사와는 달리 백화증은 단지 빨라닌 색소가 없을 뿐 몸속의 두뇌, 골격기관, 내장기관, 소화기관, 순환기관 등 물질대사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들은 정상이다. 또, 열성으로 유전하기 때문에 출현빈도가 매우 낮아 희귀하다. 옛날부터 희귀한 백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특효약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겨울철에는 사냥할 먹이도 많지 않고, 또 외부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뱀은 소화불량에 걸려 버린다. 날씨가 추워지면 먹이가 잘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광욕을 통해 반드시 체온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가끔 잡아먹은 먹이를 일부러 토하려고 노력하는 뱀을 볼 수 있는데, 먹은 먹이가 내장에서 썩게 되면 바로 죽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에 뱀은 긴 겨울잠에 들어간다. 뱀이 겨울잠에 들 때에는 자기 스스로 구멍을 파지 않고, 이미 누가 파 놓았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멍을 이용한다. 그 구멍은 대개 햇빛이 잘 드는 남쪽의 돌담 틈 사이나 큰 나무의 뿌리 밑 틈새 등에 있다. 구멍의 깊이는 그다지 깊지 않고 열지 않을 정도다. 뱀은 일단 겨울잠을 자는데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매년 그곳에서 겨울을 난다.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잠을 자는 장소에 여러 종류가 함께 모여들어 겨울을 넘기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뱀 중에 집단을 이뤄 같은 장소에서 겨울잠을 자는 종류로 살모사와 무자치가 있고, 누룩뱀, 유혈목이, 능구렁이 등도 같은 굴에서 겨울잠을 자는 경우가 있다. 뱀은 변온동물이어서 체온이 주위환경온도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동면 장소는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섭씨 15도 정도가 유지되는 땅속이 좋다.

겨울에 가장 불운하고 어리석게도 유명한 뱀은 “눈위를 기어 다니는 뱀”이라는 이름을 가진 “설상사(雪上蛇)”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 뱀이 산삼을 먹고 몸에 열이 많이 나서 겨울잠을 자지 않고 눈위를 마음대로 기어다니는 영물이라고 착각한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고려할 점이 있다. 뱀은 손이

없어 산삼을 쥔 수도 없거니와 절대 식물을 먹지 않는다. 전적으로 살아있는 동물만 먹고 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겨울잠을 자지 않고 눈위를 힘차게 기어 다니는 뱀은 왜 나타날까. 해답은 간단하다. 뱀은 동면장소를 잘못 선택해 불편하여 동면장소를 옮기려고 잠에 깨어난다. 설상사는 이런 이유로 굴 밖으로 나오다가 매서운 날씨와 더불어 눈을 맞아 최우의 발악을 하다 얼어 죽는 불쌍한 뱀이다.



《50% 백화된 능구렁이 백사》



《100% 백화된 능구렁이 백사》



《누룩뱀 쌍두사》



《살모사 쌍두사》



《單眼 Garter snake》

∴ 뱀은 왜 우리와 함께 지구에 살아야 할까 ?

인간은 지구의 다양한 생물권 내에서 여러 동·식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유기적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유난히 뱀은 차가운 냉혈동물로 취급되면서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져 그 삶의 영역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그러

나 고대 문명의 역사와 함께 끈질긴 생존자로, 한때는 숭배자로 또 한때는 배척자로 지구환경에 적응해오면서 자연생태계의 중요한 먹이사슬의 고리를 연결하고 있으며, 생태계 환경의 지표종으로서 이제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인간에게 병원균을 옮기고, 곡식을 갇아먹는 쥐를 잡아 먹어주고, 또 독수리, 너구리, 멧돼지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등 자연생태계의 평행을 유지하는 뱀들이 우리 인간에 의하여 줄어들게 되면, 자연생태계 먹이사슬이 깨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뱀 그물로 뱀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뱀 그물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데, 여기에 뱀이 잡히는 이유는 뱀은 신체 구조상 뒤로 갈 수 없고, 뱀 그물 주위를 맴돌며 배회하는 생리·생태적인 습성상 작은 야산에 뱀 그물을 설치해 뱀을 잡으면 7~8년 동안 그 야산에서 뱀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뱀이 없어진다면 뱀이 좋아하는 쥐가 늘어나 인간이 애써 지어 놓은 농작물을 뿌리째 먹어버리며, 병원성 세균인 유행성 출혈열을 옮기는 등줄쥐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될 확률도 높아진다.

그런데 뱀들이 적당하게 살고 있으면 이런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야산에 쳐 놓은 뱀 그물》



《뱀 그물에 걸린 먹구렁이》

없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서식처 파괴, 과도한 농약의 사용으로 먹이원의 감소 그리고 보신문화에 따른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점차 이 지구상에서 줄어들고 있는 뱀들을 우리는 보호하고 우리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뱀조심 공존(美: 캘리포니아)》



《뱀조심 공존(韓國: 난지도)》